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향방*

김중신**

< 차례 >

1. 문제 제기
2. 통합 교과 논술의 제적과 성격
3. 통합 교과 논술의 비판적 검토
4.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지향점
5. 결론

1. 문제 제기

2008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입시제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변화’(?)¹⁾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통합 교과형 논술(이하 통합논술)의 도입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일거에 해소할 방안이라고 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 논술에 대한 교육적 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 경력이 수십 년이 되는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백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7. 4.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수원대학교

1) 2008학년도 대입은 수능 등급제 도입, 첫 통합논술 실시, 수능 100% 선발 강화 등 이전의 입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학별·학과별로 전형방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여 권의 저서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자 저술인도 ‘대학에서 치르는 논술이라면 단 한 줄도 못쓰겠다.’는 고백까지 나올 정도이다. 교육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언론과 대학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학교가 변하고 교사가 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점잖게 충고까지 한다.

“각 교과와 담당 교사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사회적 경험에 대한 논의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나름의 언어로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더 심화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읽고 사고를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입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탐구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과 외의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2007)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다. 이들은 변화하는 논술 제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른바 논술 광풍(狂風)을 주도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사나 입시 기관에서는 줄이어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은 설명회장을 가득 채운다. 입시에 관한 한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곧 나름대로의 적응책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입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7년 봄에 논술이 다시, 또(?) 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008년도 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을 줄인다고 하자, 온 나라를 들쭉였던 논술이 광풍(狂風)의 단계를 거쳐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술에 이른바 다결기를 하던 사교육 시장은 역풍(逆風)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눈길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 논술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흘 동안 70여 명의 답안지를 채점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전에 채점한 점수를 보지 않고 찬찬히 다시 읽고 채점했더니 점수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동일인이 동일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니 제가 채점한 걸 제가 못 믿겠더라니까요. 우수학생 15%, 영망학생 15%를 뺀 나머지 70%는 도토리 키재기 실력인데 이걸로 변별력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뉴스메이커, 2007.3.2)

실제로 대학 교수 어느 누구도 지금 시행되는 논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한 바 없다.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임상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출제와 채점이라는 한 축과 대비와 응시라는 또 다른 축 중에서 정작 논술 시행과 관련하여 전자의 축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일선 학교 교사에게 문제의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사 연수가 아니라 교수 연수를 먼저 시키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지도 모른다.

2. 통합 논술의 성격

1) 통합 논술의 궤적

통합 논술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술은 몇 가지 단계에 걸쳐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첫 번째가 ‘작문’이다. 1980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본고사에는 ‘작문’의 일환으로 300~400자 내외의 글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다.²⁾ 글의 형식을 수필이나 논설문으로 지정하는 한편 특정한 교과 지식을 묻기도 하여 말 그대로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본고사에서 ‘작문’의 논제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 ‘송강 정철의 시가’란 제목으로 논설문을 써라(서울대 1977).
-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써라(서울대 1978).

다음에 도입된 것이 ‘논술’이다. ‘논술’은 1984년 3월31일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198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각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자율권을 주기 위해 ‘논문 시험 실시’를 권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985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보완 발표를 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때의 명칭은 교육 당국의 발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논술’이 아니라 ‘논문’이었다. 이러한 논문 시험은 1984년 7월 문교부의 ‘대학별 논술 고사의 출제 채점 및 사정 방법’이 제시됨으로써 좀더 구체화되었다. 이때의 논술 고사는 ‘대학 입학생의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를 대상으로 논문형 형태로 출제되고 주관식 방법으로 채점되는 고사’라고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출제의 어려움, 수험생들의 정신적 부담감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었지만 학생의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성, 논리적 사고 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평가 자료임이 밝혀지면서 1994학년도부터 다시 부활하였다.

단독 과제형, 자료 제시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던 논술은 1997년 서울 시내 주요 12개 대학 입학담당자들이 모여 ‘논술고사를 교과서에 언급된 동서고금의 고전을 바탕으로 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고전 논술’로 성격을 바꾼다. 이어 1998학년도 전국 주요 대학이 실시한 논술 고사에서 이른바, 동서고금의 고전(古典)에서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에 나타난 작자의 견해를 오늘의 현실과 결부시키도록 함으로써 시사성을 적절히 가미했다.³⁾ 특히 지문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길어짐으로써 글쓰기 능력과 함께 글읽기 능력이 논술고사 채점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러다가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 등급제 실시, 고교 등급제 불허, 논술고사 가이드라인⁴⁾ 준수 등 교육 정책의 여파로 등장한 대학 입시

3) • 인간의 익명화 문제가 어떠한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참다운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니며, 그것을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서울대 1997)

• 사물의 효용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옳은가 사물 그 자체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옳은가 서술하시오(서강대 1997).

4) 교육부는 2005년 8월 31일 논술고사에 해당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첫째, 단답

전형 요소의 하나로 ‘통합 교과형 논술’이 도입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 ; 6)는 “첫째는 암기로 얻은 지식보다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둘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셋째는 한 교과의 칸막이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 간에 소통하는 교육으로 넷째는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통합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통합교과형 논술의 성격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한 개념은 대교협에서 규정된 바 있지만, 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① 통합 논술은 책문(策問)인가?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科擧)’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책문(策問)이고 이것에 대한 답이 대책(對策)이다. 김태완(2004)에 의하면 책문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뿐만 아니라 철학·심리, 심지어는 자연과학에 관한 것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국가 정책으로 수렴되는 문제들이었다. 임금은 시험장에서 ‘책문’을 내었고, 예비관료들은 그 문제에 대해 꼼꼼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대책’을 밝혔다.

과거(科擧)는 ‘사회 상황에 대한 분석력,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현재 각 대학이 ‘논술 시험’을 통해 수험생을 평가하려는 목표와 크

형 또는 선다형 문제 둘째,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셋째,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넷째,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논술 문제로 출제할 수 없다고 제시 하였다.

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임금이 제시한 책문들은 모두 그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서 오늘날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 내용이 비교적 원론적인 것이라는 점, 또한 10대 후반의 학생들이 해결하기에는 벅차다는 점에서 통합논술과는 차이점이 있다.

② 통합 논술은 바칼로레아인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프랑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서 200여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평가 도구이다. 또한 통합교과적 성격을 갖는 시험이다. 문, 이과 공통으로 치르는 철학이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프랑스어, 역사, 지리, 수학 등 여러 과목을 논술 형식으로 치른다(정주연, 2006)는 점에서 통합 논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칼로레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학 능력이 포함되지만 우리는 수능의 보조 역할에 그친다. 통합 논술이 도입된 것도 수능이 등급만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바칼로레아는 단독 과제형인데 반해 통합교과형 논술은 제시 자료를 함께 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바칼로레아 문제들이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하는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인간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등 다분히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통합 논술과는 거리가 멀다.

③ 통합 논술은 작문인가?

통합 논술은 최종적으로 글쓰기의 산물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작문일

-
- 5) • “불교의 무리가 해(害)가 된 지는 오래다...어떤 사람은 ‘기필코 옛날처럼 중들은 죽이고 절을 헐어버리고 수색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제왕의 정치에 부합하겠는가?”
- “황제(黃帝)가 공동산에서 물었다는 도는 어떤 것인가? 그 술법을 얻어 장생구사(長生久視)한 이는 누구인가?”
- 이정섭 역, 동책정수(東策精粹), 국립중앙도서관, 2007.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않고 일정한 교과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작문이라기보다는 글쓰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성격 모두가 통합 논술과 직접적인 일대일 관련은 없지만 세 개의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통합 교과 논술의 비판적 검토

1) 통합 교과 논술과 창의성(創意性)

통합 논술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입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통합 논술에서 수험생 창의적인 답안을 측정해 낼 수 있을까? 비단 통합 논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선다형(選多型)이 아닌 자유 서술형 문항에서는 창의적 반응을 측정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2006년 1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시행한 실험 결과이다.

논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문항을 주고 이에 대한 예시 답안을 세 개 작성하였다. 그리고 논술 관련 교사들에게 일정한 배점 조건에 따라 채점을 하게 했다.

[문]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예시 답안]

김생동 군 :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이 있다.

물리적 환경에는 공기, 토양, 물 등이 있으며, 정신적 환경에는 문화, 언어, 역사 등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의 오염, 즉 대기 오염, 토질 오염, 수질 오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보다는 정신적 환경의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중에서도 언어 환경의 오염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언어의 사용, 비어나 속어의 사용 금지 등 언어의 순화에 더욱 매진을 해야 할 것이다.

모난돌 군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환경을 더욱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

환경은 기하급수처럼 오염된다는 로마클럽의 경고처럼 환경이 덜 파괴되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러니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은 지금보다 더욱 파괴되어야 한다.

이대충 군 :

인간은 환경 속에 살아가야하는 존재이다. 환경이 없다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버리는 생활 폐수, 대기 오염 등은 우리에게 더욱 큰 제약으로 다가온다. 환경은 인체의 간(肝)과 같은 존재이다. 평소에는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혹사당할 때는 가차없이 복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점수 산정 방법] 100점 만점. 60점 이하면 낙제. 개별적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룹별로 토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점수로 부여할 것.

위의 예시 답안을 검토하여 보자.

김생동은 환경의 개념을 임의로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물리적 환경을 말하나 이 학생은 환경을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이중 정신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의 순화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을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창의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모난들은 의외이다 못해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을 지금보다 더욱 파괴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학생들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한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을 더욱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측면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

이대충은 얼핏 보아 무난한 답안이다. 하지만 맨 처음 세 문장에서 표현한 달리했을 뿐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논제를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나 환경을 인체의 간(肝)으로 비유한 것은 표현 면에서 참신성을 줄 수 있으나, 외부적 요인인 환경을 내적 요소인 간(肝)에 비유한 것은 ‘비유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위의 예시 답안에 대해 A, B, C 세 그룹⁶⁾의 교사진이 채점한 표이다.

6) 이 그룹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인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논술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일선 학교에서 논술 첨삭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 때에 주어진 문항과 예시 답안을 시범적으로 채점하게 해 보았다. 한 그룹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별적으로 답안에 대해 채점을 한 후 그룹별로 다시 상의를 한 후 그룹별로 점수를 부가하게 하였다. 몇몇 학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거의 동일한 응답이 나왔다. 물론 통합 논술은 대학교수들이 채점을 한다는 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논술에 관심을 갖고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간헐적으로 그것도 1년에 한번 논술에 관심을 갖는 채점 교수들보다 채점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답안	김생동			모난돌			이대충		
채점 교사 그룹	A	B	C	A	B	C	A	B	C
논리성(30)	5	7	20	10	12	15	22	20	18
창의성(50)	45	40	25	40	20	40	30	25	30
표현력(20)	15	10	13	10	18	18	16	18	17
소계	65	57	58	60	50	73	68	63	65
계(평균)	180(60)			183(61)			196(65.3)		

채점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세 명의 학생 중 무난하면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이 평범하게 쓴 ‘이대충’의 답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생동과 모난돌은 다른 항목에서 별로 점수를 얻지 못해 최고점을 받는데 실패했다. 반면에 규범적이며 유형적인 답안을 쓴 이대충은 창의성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으나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성에서 비록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나 논리적인 측면이나 표현의 측면에서 비교적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논술에서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이 창의적인 것인가? 창의적인 답안이란 다른 학생들이 쉽게 생각해 내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답안은 자칫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이 되거나 논제에서 벗어난 답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모난돌에 대한 채점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두 명의 채점 그룹은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다른 채점교사 그룹은 낮은 점수를 주었다. 창의적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⁷⁾

7) 97학년도 서울대에서 출제되었던 ‘현대인의 의명성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적 노력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체제 전체의 제도적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라’는 논제에 ‘명찰을 달고 다니자’, ‘목욕탕에서처럼 훌쩍 벗고 만나다’ 등의 답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장은 될 수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왜 그럴까? 주장

논술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주장의 창의성이 아니다. 논증 과정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논술은 냉철한 이론, 치밀한 논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튀는’ 주장은 채점자에게 거부감을 줄 뿐 좋은 답이 되지 못한다. 요컨대 통합 교과형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도 아직 검증된 바 없다.⁸⁾

2) 통합 교과 논술과 탐구성(探究性)

통합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제출된 문항에서는 탐구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서술식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북소리 뚝뚝 울려/사람 목숨 재촉하네./고개 돌려 바라보니/해도 지려 하는구나./황천에는/주막 한 곳 없다 하니./오늘 밤은 어느 집에 묵고 간담?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논 제] 위의 시는 성삼문(成三問)이 죽기 전에 쓴 절명시(絶命詩)이다. 이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400자 이내)⁹⁾

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 익명성이 차유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8) 이런 면에서 논술에서의 창의성은 ‘조반유리(造反有理)’에 가깝다.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조반유리’는 모든 저항과 반란에는 그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이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내세운 구호로,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다.

9) 서울대, 2008년 모의고사 인문계 1번 문항(2007. 2. 22 시행).

이 문제는 주어진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나타난 ‘삶’,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논의의 영역을 논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시에 나타난’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시 작품에 국한하여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자인 성삼문의 개인사와 관련시켜 단종에 대한 충성심과 선비로서의 꿈은 절개의 발현을 주된 내용으로 쓰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 측이 모의 논술고사에 대해 ‘미비한 답안’과 ‘좋은 답안’을 구별하여 예시로 작성한 것도 ‘정답’의 존재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한(2007)은 “통합논술의 가장 큰 승부처는 출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답을 써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통 ‘정답’이라고 부른다. 통합논술이 자꾸 본고사 논란에 휘말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한다. 대학 측에서는 애써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글 쓰는 ‘과정’이고, 써야 하는 ‘내용’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탐구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3) 통합 교과 논술과 측정성(測定性, measurement)

통합 교과 논술은 태생적으로 입시 전형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수험생의 능력을 필요하고도 충분히 측정(測定)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 논술은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해서 측정의 요건인

특히 (가)형의 2번의 (1)문항은 거의 완벽한 답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탐구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 문제는 이제 논술에서 창의성을 배제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코 학생들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형화되고 통제적 수식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신뢰도(信賴度 reliability)와 타당도(妥當度 validity)의 측면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¹⁰⁾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른 이후 논술에 의한 변별성 확보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불평도 보고되고 있다.¹¹⁾

원진숙(2007 ; 218)은 “표준화가 가능한 수능 평가 방식이 신뢰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비해 논술 평가는 원천적으로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은림(1999)은 논술 성적은 지원자들의 대학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데 비해서 대학 학업 성취도를 위한 예측 타당도는 매우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논술 시험의 채점 기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서울대 중등교육연수원(2007)은 논술 시험의 평가 항목¹²⁾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0) 논술의 측정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의 기사는 논술 채점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양대 홍○○ 교수는 ‘논술시험의 채점은 대생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우선, 대학입시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수많은 교수들이 함께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이 다른 교수들은 선호하는 사고방식도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컨대, 경영계열 교수들이 효율성을 논조로 내세우는 답을 좋아한다면, 인문계열 교수들은 인간성이 강조된 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논조가 성과 지향적인가 아니면 온정적인가에 따라 채점교수의 가치관이 반영된 상이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안을 채점하는 각 교수마다 평균점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젊은 교수들은 대개 간간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고, 연세가 드신 교수들은 너그러운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점수의 폭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령 한 채점교수의 재량이 20점이라면, 어떤 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넓은 폭을 갖습니다. 반면 어떤 교수는 점수 폭이 크지 않아, 못 써도 10점 이하는 잘 안 주고 웬만큼 잘 써도 18점 이상은 안 줍니다. (...) 논술시험의 채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사나흘 간 채점을 계속합니다. 교수도 인간입니다. 첫날과 맨 나중 날 채점의 잣대가 컴퓨터처럼 동일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시겠죠? 또한 아무리 편견을 없앤다 해도 글씨를 못 쓰거나 지저분하게 수정한 답안보다는 깨끗하게 글씨를 잘 쓴 답안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메이커, ‘논술 채점에도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사, 2007. 3. 2.

11) “고려대학교는 논술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박우성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영어 지문 금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2006학년도부터 논술 변별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논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좁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메이커, 같은 곳, 2007. 3. 2.

(1) 자료의 해석과 분석 능력

① 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2) 논리적 사고 능력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종합적 사고 능력

(5) 언어 표현 능력

① 표현의 조직과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② 풍부하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은 논술에 대한 평가 항목이자 일종의 채점 기준표가 된다. 평가 항목은 각기 독립된 단위로서 상호 배타적인 득점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항목들이 분절적이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다. 예컨대 어떤 답안지가 (1)-①의 항목에서 점수를 얻었다면 (5)-② 항목에서도 점수를 얻게 된다. 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은 당연히 풍부하고 적절한 언어로 그것을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4.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지향점

1) 임상성(臨床性)에서 항상성(恒常性)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의 상승, 안정적 삶을 도모하려는 의식이 팽배한 한국적 현실에서 입시 제도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항상성을 지녀야 한다. 1997년도 이후 고전 논술의 열풍이 일자 고전 읽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제시문이 주로 교과서의 지문을 다루다 보니 고전이 실종되고 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 손에서 고전이 떠나고 있다. 그들은 NIE나

12) 5개의 상위 항목과 17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신문사에서 나오는 논술 특집면을 보고 있다.

입시 제도는 항상성을 가져야 한다. 중등학교 현장은 물론 출판,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대학의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입시 제도의 가변성에 따라 유동의 폭이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김진경(2007)은 “아동책의 판매동향을 보면 대학입시 논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판매량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그래서 논술과 관련된 지식정보 기획물 쪽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고, 신문광고를 보면 창작물에도 흔히 대학논술에 이러저러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광고문구가 달려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겠다는 명분 아래 변별력 있는 입시 문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또한 끊임없이 본고사 부활을 피하고 있다. 현재의 입시 제도는 ‘3불 제도’라는 정권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정권 교체기에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통합 교과 논술도 그 위상은 물론이거니와 존재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대학은 2008년 통합 교과 논술의 취지에서 밝힌 대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 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2007 ; 15)를 위해 통합 교과 논술의 항상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앞에서 제기한 통합교과 논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식하는 것이다.

2) 입시 전형에서 교과 과목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시 개정안’에 따르면 논술교육이 강화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교과에 논술 관

런 내용을 반영하고 고교는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 관련 내용을 담은 수준으로 추가하게 된다(동아일보, 2007. 1. 13).

하지만 논술의 입시 과목으로서의 항상성이 흔들리게 되면 이러한 시행안 또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논술에 대한 중요성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논술 강화안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우려는 절대 기우만은 아니다. 논술이 단순한 표현 기교로서만이 아니라 언어적 사고력의 신장과 측정의 한 방법인 면을 고려할 때 논술은 입시 과목의 항상성 확보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교과목으로서 그 위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논술은 입시 과목 혹은 입시 수단이 아니라 교과이어야 한다.

3) 논술(論述, critical essay)에서 독술(讀述, reading & writing)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 5)에 의하면, ‘논술은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이다. 이런 면에서 논술을 합리적 논증 과정과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원진숙(2007; 212~213)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하지만 논술이 단순히 문제 해결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로 주어진 문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해(讀解)’가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중등교육원(2007)이 ‘교과 담당 교사는 누구나 해당 과목의 읽기 전문가(reading 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각 과목의 특징적인 개념과 지식 체계를 반영한 교과서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책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논술에서 독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수능이 문학에서 비문학 지문이 읽기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든가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의 ‘언어 논리’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자격시험(MEET/DEET)의 ‘언어 추론’에서 다루고 있는 독해의 양상은 통합

논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암시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논술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와 표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논술은 단지 표현의 측면만을 강조하므로 측정성의 측면에서 여러 난점을 안게 된다. 단지 writing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논술(論述)보다는 독해가 바탕이 된 논술, 그리고 논술로 확인할 수 있는 독해라는 개념인 ‘독술(讀述 reading&writing)’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독해와 논술을 운용하는 이면에는 사고(思考)가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4) 통합(統合)에서 통섭(通攝)으로

통합 교과란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 중에서 특정 교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용되는 교과의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각 교과 지식을 넘나들며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문계 논술에서도 일상에서 접하는 수리적 해석의 오류에 대한 논제를 출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교과는 그 자체 속성상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통합은 각 교과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거나 수험생의 계열을 넘나드는 영역의 교차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통합 논술은 주로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계 학생은 통합교과 논술이 아닌 자연계 논술을 치르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과의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교과 중 어느 것에도 나오지 않은 것을 다룰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특정 교과나 영역의 점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계열을 교차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교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논술이 통합 교과형을 지향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통섭(統攝 · consilience)’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통섭은 사전적 의미로 ‘사물에 널리 통합, 서로 사귀어 오감’을 뜻하는 이 말은 전문화로

분화된 대학의 학문이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해야 급변하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통섭은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本有)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통섭(通攝)을 제창한 에드워드 월슨(2005)은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 설명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보다 어렵겠지만 생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식의 대통합을 제안하고 있다.¹³⁾

통섭론자들은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며,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성공적인 만남은 결국 모든 학문의 통합으로 이어질 것을 제창하면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원시적인 제도는 이제 과감히 걷어내자고 역설한다. 이들은 21세기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기본이 돼야 한편, 인문학이 모든 배움에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중앙선데이, 2007).

인간의 능력은 학교의 교과만을 통해서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경험에 의해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적 성장의 핵심은 경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돈희, 1993 ; 37).

경험이란 무엇을 보고 행하고 느끼고 평가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들이 경험이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객관적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인간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후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광수, 2005 ; 85). 성장의 다른 요소들은 경험의 성장을 중심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과 자체만의 통합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교과 외의 모든 요소가 아우러진 통섭적이 되어야 한다.

13) 물론 통섭(統攝)의 학문적 패권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고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섭이 특정 학문(사회생물학)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것은 지배 담론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던적 시대 정신에 역행하며, 한 과학이론으로 전부를 통제·포섭하려는 계몽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김흥영, 2007)

이미 국립교육평가원(1995 ; 15)은 수능에서도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이 필요하다¹⁴⁾고 강조한 바 있다.

5. 결 론

모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강남의 논술 전문 학원에서 작성하였고, 이를 다시 대학의 출제 위원이 채점할 결과 낙제점을 주었다. 출제의도를 잘못 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출제위원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답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06. 11. 8).

이제 논술은 단순히 대학 입시의 전형 요소를 넘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논술은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수단으로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일생을 판가름하게 될 결정적 척도로서,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한 혁신의 계기를, 사교육 담당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학부모에게는 자식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논술이 사회 각 계층의 이해가 엇갈리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200년 역사를 가진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¹⁵⁾

14)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의 통합교과적 소재’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이 원칙은 문제 상황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교과의 소재가 통합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으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 본 논문은 2007. 6. 12. 투고되었으며, 2007. 7. 3.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2.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광수(2005), 「문화 감상의 경험 교육적 성격에 대한 예비적 고찰」, 『문학교육학』 16호.
국립교육평가원(1995),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김진경(2007), 논술 편집증의 사회적 기원, 창비 주간논평(weekly@changbi.com), 2007.3월.
김태완 편(2004),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김홍영(2007), 사회생물학 중심 '통섭론'을 반대한다, 중앙일보, 2007.4.17.일자.
뉴스메이커(2007), '논술 채점에도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사, 2007.3.2.일자.
동아일보, 2007.1.13.일자
서울대 중등교육연수원(2007), 논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등교사 연수.
에드워드 윌슨(2005), 『통섭-지식의 대통합』, 최재천·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원진숙(2007),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교과 논술 시험」, 『국어교육』 122호, 한국어교육학회.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과 사고』, 역락.
이시한(2007), 통합논술의 비교 포인트, 조선일보, 2007.3.7.일자
이정섭 역(2007), 『동책정수(東策精粹)』, 국립중앙도서관.
정주연(2006), 논술을 위해 알아야 할 쟁점들, 교과서에 모두 있다!!, 상계고 논술 연수 자료.
중앙선데이(2007), 2007.4.1.일자, 중앙일보사
지은림(1999), 「대학 입학전형자료들의 타당도 및 공헌도 평가를 통한 학생선발도구로서의 의미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2006), 논술 길라잡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초록>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향방

김중신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입에서 통합 논술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교육에서 통합 교과논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대입 제도에서 글쓰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작문’과 ‘논술’, ‘고전 논술’이라는 제도를 거쳐 도입된 ‘통합 논술’은 창의적 사고의 중시, 과정 중시 공규, 교과간 소통 교육, 자기 주도적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통합 논술은 조선 시대의 ‘책문(策問)’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혹은 글쓰기로서의 ‘작문’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세 가지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 논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창의성(創意性)이다. 선다형(選多型)이 아닌 자유 서술형 문항에서는 창의적 반응을 측정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통합 논술에서도 창의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이 쓴 답안에서 창의성을 측정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음으로 탐구성도 마찬가지이다.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제출된 문항에서는 탐구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서술식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애써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글 쓰는 ‘과정’이고, 써야 하는 ‘내용’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탐구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합 교과 논술은 태생적으로 입시 전형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수험생의 능력을 필요하고도 충분히 측정(測定)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 논술은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해서 측정의 요건인 신뢰도(信賴度 reliability)와 타당도(妥當度 validity)의 측면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합 교과 논술은 국어 교육 측면에서 세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임상성(臨床性)에서 항상성(恒常性)을 지향해야 한다. 중등학교 현장은 물론 출판,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대학의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통합 교과 논술의 항상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논술이 단순한 표현 기교로서만이 아니라 언어적 사고력의 신장과 측정의 한 방법인 면을 고려할 때 논술은 입시 과목의 항상성 확보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교과목으로서 그 위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논술은 입시 과목 혹은 입시 수단이 아니라 교과이어야 한다.

셋째로 논술(論述 critical essay)이 아니라 독술(讀述 reading&writing)을 지향해야 한다. 단지 writing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논술(論述)보다는 독해가 바탕이 된 논술, 그리고 논술로 확인할 수 있는 독해라는 개념인 ‘독술(讀述 reading & writing)’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독해와 논술을 운용하는 이면에는 사고(思考)가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통합(統合)에서 통섭(通攝・consilience)을 지향해야 한다. 통합 교과란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 중에서 특정 교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용되는 교과의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합 교과는 그 자체 속성상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통합은 각 교과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거나 수험생의 계열을 넘나드는 영역의 교차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최근 논술이 통합 교과형을 지향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통섭(統攝)’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교과 자체만의 통합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교과 외의 모든 요소가 아우러진 통섭적이 되어야 한다.

【핵심어】 통합 교과 논술, 작문, 책문, 창의성, 탐구력, 측정 가능성, 고전 논술, 바칼로레아, 항상성, 독술, 통섭

<Abstract>

A Study of Direction of Unificated-Subject Essay in Korean Education

Kim, Jung-sin

I will observe Unificated-Subject Essay(통합 교과 논술) which becamed the problem from univercity entrance examination. And I will research how USE taught in korean education

USE' character is beyond.

USE is not Chaek-Mun(책문), Baccalauréat and Writing. But it has same character a little with above three.

They are criticizing against USE.

At first, they can't measure the creativity in USE. And it emphasizes the investigation, but they can't measure the investigation in USE. At last they can't measure the ability of the students accurately.

My suggestion of the direction of USE in korean education is beyond.

First, the USE should become from the clinics to homeostasis.

Second, it should be not entrance examination tool, be a subject of the curriculum. Third, it should be not just writing, be reading & writing. Last, it should be changed from synthesis to the consilience.

[Key words] Unificated-Subject Essay, writing, Chaek-Mun(책문), Baccalauréat, investigation, homeostasis, reading & writing, consilience.

【토론문】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향방>에 대한 토론문

원진숙(서울교육대학교)

김중신 교수님께선 최근 3불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합 교과 논술의 문제를 대학 논술 시험의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궤적을 살피고, 아직도 그 본연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통합 교과 논술의 문제점들을 특유의 예리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또한 통합 교과 논술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특히 우리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임상성(臨床性)에서 항상성(恒常性)으로’, ‘입시 전형에서 교과 과목으로’, ‘논술에서 독술(讀術)로’, ‘통합(統合)에서 통섭(通攝)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통합 교과 논술과 관련된 교육 당사자들(교사, 교수, 수험생, 학부모)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왔음직한 보편적인 문제 의식들을 정연한 논리로 설파하고, 학교 교수 학습 현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통합 교과 논술의 지향점을 매우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 토론자로선 김 교수님의 논의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갖기보다는 평소 가려왔던 등을 대신 풀어주어서 시원하고 고맙다는 느낌이 앞섰습니다. 이런 걸 동업자 의식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년 전 논술 교육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소위 쓰기 교육 전공자로서 논술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오던 제가 최근 통합 교과형 논술 문제들을 보면서 느꼈던 당혹감은 과연 논술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논술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2006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 사회 계열 통합 교과형 논술 예시 문항과 같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좌표로 설정해 ‘지니 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선분의 중심 좌표에

대한 정의’, ‘면적의 개념’ 등 수리 교과 지식을 서로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상황을 대하면서 솔직히 저는 본래 논술의 취지나 선한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가공할 만한 수준의 파괴력만 남게 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채점하는 현직 교수들 가운데 과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대충 감(感)으로 채점하고 평가하면서 천편일률적인 판박이 답안 운운하는 ‘별거숭이 임금님’의 위선을 속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온하고 발칙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내로라하는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요즘 같은 대학 논술 문제는 평생 글쓰기를 업으로 삼아온 나도 풀 자신이 없다.”는 지지 발언을 해 주셔서 비단 나만이 이런 절망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최소한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합 교과 논술은 암기로 얻은 무력한 지식이 아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한 교과의 칸막이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 간에 소통하고 통섭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을, 주입식 학습이 아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견 이러한 통합 교과 논술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평가 체계라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 교과 논술은 김종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어진 지문을 독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 출제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답’을 향해서 정해진 과정과 단계를 밟아 답해야 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형식이 수험생 자신이 탐구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3수준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체험이 글쓰기를 통해서 구현되기 어렵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탐구적 성격과도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실제 평가 국면에서 타당도나 신뢰도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모든 통합 교과형 논술의 문제점들은 그 태생적 기원에서 기인합니다. 본고사가 허용되지 않고, 수능과 내신이 등급제로 전환되면서 학생의 우열을 가리는 변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 당국이 교육정책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논술을 본고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표층 구조는 논술이지만 심층 구조는 본고사인 이중 구조로 된 ‘통합 교과 논술’입니다.

통합 교과 논술의 등장으로 논술의 개념조차 모호해진 이 상황에서 저는 논술은 논술로 남아 그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논술은 본질적으로 글쓰기를 통한 문제해결이고, 글쓰기를 통한 설득입니다. 논술 개념은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다른 독자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합리적 논증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논술 평가 역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합리적인 논증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적 차원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설득 능력, 논술 주체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갖게 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논의가 잠시 결길로 빠진 듯합니다. 다시 토론자로서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1. 김 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혜안으로 모름지기 입시 제도는 임상성에서 벗어나 항상성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시면서 정권 교체기에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통합 교과 논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 교과 논술의 항상성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은 논술의 왜곡된 변종으로서의 지금과 같은 통합 교과 논술이 아니라 바로 본연의 글쓰기로서의 논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본고사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성실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내신 성적과 교육 관여 주체가 모두 이의없이 동의할 수 있는 표준화가 가능한 수능이 등급제를 탈피해서 그 본연의 변별력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지금과 같은 통합 교과 논술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논술은 그저 고3 학생 수준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체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인간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와 같은 바칼로레아식 논술 문제나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서술하시오”와 같은 미국 대학교의 입학 논술 문제 수준으로 출제되면 족할 것입니다.

2. 김 교수님께서서는 논술은 입시 과목의 향상성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그 위상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수험생들이 논술을 대학 입시의 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술은 본질적으로 특정 교과와의 전유물이 아닌 범교과성(凡敎科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주장대로 논술을 별개의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설정한다면 논술 교과과는 아마도 필자의 개성적인 목소리나 설득과 같은 글쓰기의 요소보다는 ‘논리’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서 형식 논리에 강한 철학이나 윤리 교과와 같은 특정 학문 분야 종사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논술의 향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별도의 교과로 설정하기보다는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ISA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반면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나 창의성, 자신감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 합니다. 논술 평가가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은 지금과 같은 강요된 학습과 평가 체제하에서는 절대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많은 교과목 수에 별도로 또 하나의 교과목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교과목 수를 줄여줌으로써 논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교

실 공간을 교과서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쓸 수 있는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교육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서서는 바람직한 논술의 지향점으로 ‘통합’에서 ‘통섭’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원고를 통해서 김 교수님께서 이 두 개념을 서로 어떻게 구별하고 계신지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별해서 이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연과학을 하시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자신의 지도교수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을 번역하시면서 ‘統攝’이라는 매력적인 화두를 우리 학계와 교육계에 던지셨는데 저 역시 이 ‘통섭’을 근간으로 한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통섭’ 개념이 서울대에서 처음 내놓은 통합 교과 논술의 매우 주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음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 교과 논술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창의성의 토대가 되는 영역 전이적인 통합적 사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교과목의 칸막이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간에 소통, 통섭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영역 전이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학문 영역간의 ‘가로 지르기’를 통한 통섭 능력으로서의 사고 능력은 수월성을 갖춘 국가 핵심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에서나 본격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것이지 교과 분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 기관인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있는 화두로 본 토론자에게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신 김중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